

朝鮮朝 書院文庫에 관한 一考察*

A Study on the Library of Seowon During the Joseon Dynasty

김 윤 식(Kim, Yoon-Sik)**

◁ 목 차 ▷

1. 서 론	4. 서원문고의 설치와 도서의 수집
2. 서원의 설립과 변천	4.1 구입 도서
2.1 서원의 설립	4.2 기증 도서
2.2 서원의 변천	4.3 도서의 간행 및 필사
3. 서원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5. 결 론
3.1 교육목표	<참고문헌>
3.2 교육내용	

< 초 록 >

본고는 조선조 書院文庫에서 구입과 수증 그리고 자체적으로 간행하거나 筆寫하여 수집된 도서의 주제를 고찰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원에서 구입한 도서는 講學의 기본서인 四書三經의 經書類와 朱子學 관련도서가 대부분이었고, 소수의 歷史書가 포함되었다.

둘째, 서원이 기증받은 도서 중 內賜本의 주제는 강학에 필요한 경서류와 주자학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며, 官衙의 기증본도 내사본과 유사한 주제의 도서들이었다. 반면 서원에서 기증 받은 도서는 先賢의 문집이나 傳記書가 대부분이었으며, 개인 기증본의 내용은 선현의 문집, 전기서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강학에 필요한 경서류도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서원에서 간행한 도서의 주제는 配享者나 設立者와 관련된 선현들의 문집이나 전기가 대부분 이었고, 일부 간행된 강학용의 經書와 史書, 儒家類도 배향자가 저술한 도서가 대부분 이었다. 서원에서 필사한 도서의 주제는 배향자의 문집이나 전기서가 일부 있었지만, 서원의 건립, 운영상황, 입학한 儒生의 명단, 방문자, 奴婢나 田畷 등의 기록을 적은 서원의 사료적인 자료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要語: 조선, 서원문고

* 이 논문은 2007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skim@dongduk.ac.kr)

접수일: 2008년 12월 5일 최초심사일: 2008년 12월 8일 심사완료일: 2008년 12월 18일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books collected at the libraries of private academies(Seowon) through purchase, donation, publication, or transcrip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books purchased by private academies were mostly Confucian classics such as the Four Books and the Three Classics, and those associated with Neo-Confucian, for teaching Confucianism, and few history books were also included.

Second, the books donated by the king to private academies were Confucian classics and Neo-Confucian books for teaching, and those books donated by government agencies were similar. Most of other books donated to private academies were literary collections or biographies of ancient sages. Personal donations also included mostly literary collections and biographies of ancient sages and some Confucian classics for teaching.

Third, the books published by private academies were mostly literary collections or biographies of ancient sages who established or were commemorated at those academies, and some Confucian classics, history books, and Neo-Confucian books written by those scholars. A part of the books transcribed were literary collections or biographies of sages commemorated at those academies, but most of them were historically valuable in tha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those private academies, names of students and visitors, and their servants and farming fields were recorded.

Key words: Joseon, Library of Seowon

1. 서론

조선조의 문고의 유형은 고려조에 이어 王室文庫, 官營文庫, 寺刹文庫, 學校文庫, 私設文庫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¹⁾ 여기서 학교라 함은 관학과 사학으로 나누어 관학에는 중앙에 成均館과 四部學堂 그리고 지방에 鄉校를 말하며 사학으로는 書院을 뜻한다. 그러므로 서원문고는 사립 교육기관에 설립된 문고로서 지금의 사립 학교도서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관학이던 사학이던 교육기관에는 강학에 필요한 도서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활용할 문고의 설치는 필수적인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조선조에 있어서도 성균관은 물론 지방의 향교와 서원에도 문고가 설치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였음은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문헌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학교문고에 대해서는 도서관학이 성립된 후 성균관의 존경각과 향교문고에 대한 연구가 초기에 몇 편 발표된²⁾ 후 더 이상 자료가 부족해선지 새롭게 발표된 글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으며 서원문고에 대해서도 그 사정은 비슷한 형편이다. 사학기관 자체로서 서원에 대한 연구가 국사학, 교육학계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그 문고에 대해서는 일찍이 「李朝書院文庫考」³⁾가 발표된 이래 별다른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이 서원 문고에 대해 총론적으로 자세하게 언급된 괄목할 만한 연구 결과이었으므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못 느낀 점도 있겠지만, 자료 부족으로 인한 후학들에 관심이 부족하였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다행히 최근에 개별적인 서원의 간행도서나 장서목록과 관련된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며,⁴⁾ 특히 서원의 도서관 기능에 대한

1) 白麟, 「韓國圖書館史研究」(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1), 21.

2) 李春熙, “尊經閣考,” 「大東文化研究」 10(1975. 12), 153-172.

李春熙, “朝鮮朝 鄉校文庫에 관한 연구,” 「圖書館學」 5(1978. 12), 1-30.

3) 李春熙, 「李朝書院文庫考」(서울: 국회도서관, 1969).

李春熙,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관한 研究」(서울: 景仁文化社, 1984).

4) 윤상기, “경남함양군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2집(2005. 12), 237-271.

朴現圭, “屏山書院 書冊目錄의 分析과 그 特徵,” 「季刊書誌學報」 14(1994. 12), 37-65.

연구⁵⁾가 우리 학계가 아닌 사학 분야의 관심으로 발표되었음은 다행한 일이다.

본고는 선행 논문들의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겠으나 가능한 이를 면하기 위하여 서원문고의 자료 수집 방법에 따른 수집 도서의 주제 분석에 중점을 두고, 위의 논저들을 비롯한 선행논문들과 각종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 내용은 우선 서원의 설치와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교육적 기능과 강의 내용을 밝힌 후 구입 기증 간행 및 필사 등 수집 방법에 따른 도서의 주제를 사부분류법에 근거하여 분석 조사하였다.

2. 서원의 설립과 변천

조선조 서원문고의 도서수집 방법과 수집된 도서의 주제를 분석 조사해 보기에 앞서 서원의 설립과정과 설립이후 어떻게 발전 변천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1 서원의 설립

서원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강학과 선현을 향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설 교육 기관으로서 그 최초는 중종 38(1543)년에 풍기군수 周世鵬이 고려시대에 성리학 연구와 보급에 크게 기여한 安珦의 연고지에 세운 白雲洞書院이다. 그러나 서원의 명칭은 고려 이전은 차치하고⁶⁾ 조선조에 들어서 그 사용은 세종조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즉 세종이 즉위(1418)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아과 지방의 신료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유시한 내용 중에서

5) 尹熙勉,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歷史學報』 제186집(2005. 6), 1-26.

6) 丁淳睦, 韓國書院教育制度研究 (경산: 嶺南大學校, 1979), 25-26.에서 신라시대에 瑞書院과 고려시대 修書院을 서원 명칭 사용한 예로 언급하고 있다.

“학교는 풍속과 教化의 근원이니, 서울에는 성균관과 五部學堂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鄉校를 설치하여, 勸勉하고 訓誨한 것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는데도, 성균관에서 수학하는 자가 오히려 정원에 차지 않으니, 생각건대 교양하는 방법이 그 방법을 다하지 못한 때문인가 사람들의 趨向이 다른 데 좋아하는 점이 있는 때문인가 그 진작하는 방법을 정부와 육조에서 검토 연구하여 아될 것이다. 더구나 향교의 생도는 비록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 있더라도, 있는 곳의 수령이 書役을 나누어 맡기고 賓客을 응대하는 등, 일에 일정한 때가 없이, 사역하여 학업을 폐하게 하니, 지금부터는 일절 이를 금지시키고, 그 儒士들이 사사로이 書院을 설치하여, 생도를 가르친 자가 있으면, 위에 아뢰어 포상하게 할 것이다.”⁷⁾

라고 밝혀 관학이 아닌 사학으로서의 서원 설립을 권장하고 포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 결과 2년 후(1420) 金堤의 鄭坤과 光州의 崔保民이 사재를 들여 서원을 세워 학생을 가르친 일로 벼슬을 내려 포상 하였으며,⁸⁾ 그 후에도 평안도 생원 姜友諒이 서원을 사사로이 설립하고 학생을 모집 교수하였다고 표창한 일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이상과 같은 기사로 보아 대체적으로 조선조의 서원이라고 하면 백운동서원을 기원으로 하고 있으나, 분명 서원의 설립은 관학인 향교와 함께 사학기관으로 선현을 향사하는 祠廟 없이 학생만을 교육하는 서당이나 사숙과 같은 의미로 세종조에 먼저 설립되었음이 분명하다. 다만 포상까지 주면서 권장하였는데도 이후 백여년 동안이나 서원 설립에 대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궁금한 일이다.

그리고 교육기관이 아닌 향사만을 행하는 서원들도 백운동 보다 먼저 세워진 것으로 조사되어 알려지고 있다. 즉 백원서원, 천곡서원, 도천서원, 모암서원, 도동서원이 그것이다.¹⁰⁾ 이 서원들은 각기 인용 문헌마다 설립 시기에 차이는 있으나 대개가 중종 38년(1543) 백운동서원 설립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世宗實錄』 권2, 즉위년 11월 己酉.

8) 『世宗實錄』 권7, 2년 정월 庚申.

9) 『世宗實錄』 권9, 2년 9월 己丑.

10) 金昌郁, “16세기 初期書院의 講學活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1996), 42.

그러므로 서원의 명칭은 齋를 갖추지 아니하고 享祀를 위한 祠만을 갖추었다거나 祠를 갖추지 아니하고 齋만을 갖추어 강학만을 행하였더라도 공히 서원이란 용어를 사용한 사례는 종종조 이전에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백운동 서원은 사와 재를 갖추어 향사와 강학의 기능을 겸한 서원이라는 점에서 최초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세붕은 종종 36(1541)년에 풍기군수에 부임하여 이듬해 큰 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향선생의 사묘를 건립하고 다음 해 사묘 앞에 서재를 세워 서원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먼저 안향을 모시는 祠堂을 갖추어 성현에 대한 향사를 더 중요시 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주세붕이 성현을 제사하기 위한 사를 마련한 것은 향교나 성균관이 문묘를 갖추어 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은 경우로 교육의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음은 주세붕이 성현에 대한 향사에 앞서 교육의 중요함과 시급함을 언급한 다음의 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하늘이 사람을 내리심에 인간이 되게끔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은 반드시 현인을 존경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에 사당을 세워 덕을 숭상하고 서원을 세워 학문을 돈독히 하는 것이다.”¹¹⁾

라고 말한 바 있어 주세붕이 고려시대 道學의 祖로서 益齋, 圃隱에 영향을 미쳐 조선에 들어와 학풍을 크게 일으키게 한 공을 남긴 安珦을 主享하기 위해 그의 연고지인 풍기에 먼저 사묘를 세우고 나서 학사를 세운 것은 학문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세붕의 이러한 서원 교육관은 뒤에 황해도 관찰사로 갔을 때 崔沖을 향사하는 사묘와 서재를 갖추어 文獻書院을 설립한 사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서원은 조선조의 사학 교육기관으로 세종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며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은 尊賢興學의 뜻으로 존현을 모시는 사묘를 세워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서원으로서의 정착을 가져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특히 재와 사를 갖추므로서 설립자마다 자기가 존경하는 선현을 향사할 수

11) 周世鵬, 『竹溪志』 國譯本(榮州: 榮州市, 2002), 35.

있고 유생들은 동일시하고 싶은 선현을 경모하면서 학문을 연마한다는 점에서 재만 갖춘 서원보다 더욱 번창할 수 있었으며 지방의 학술 문화 발전의 구심점으로 오래 동안 지속할 수 있었다고 믿어진다.

2.2 서원의 변천

선현의 향사와 강학을 겸한 백운동서원은 明宗원(1545)년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안향의 11대손 安玳에 의하여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고 운영방책을 보완함으로써 발전하게 되었으며 더욱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한 것은 退溪 李滉에 의해서이다.

이황은 명종 3(1547)년에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 백운동서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사림의 講學과 藏修를 위한 교학기구로 성격지우고, 다음해 영남 감사 沈通源을 통해 명종에게 사액서원을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紹修書院으로 賜額되고 서적, 奴婢, 學田까지 하사 받음으로서 왕이 인정하는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러한 퇴계의 請額활동은 서원을 전국에 알리고 보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 퇴계 스스로의 건립과 보급에 주력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명종조 이후 宣祖朝에 들어와 사림계가 정치적 주도를 하게 되면서 서원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肅宗朝에는 1개도에 서원이 80-90개소를 이르기 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된 서원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게 되었으므로 일찍이 仁祖朝에 경상 감사 임담이 서원의 폐단을 馳啓한¹²⁾ 것을 시작으로 孝宗朝에는 충청감사 徐必遠이 書院四弊論을 거론하였다. 그 첫째 폐단은 서원으로 말미암아 향교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서원에서 모집하여 사용하는 保奴는 군역의 도피처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主享者를 정하는데 공론에 따르지 않아 논란이 심하여 풍속을 상하게 함이 극심하다는 점이며, 넷째는 서원의 춘주 향사때 제수의 비용을 절제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¹³⁾ 등이다.

12) 「仁祖實錄」 권22 8월 己未.

서원과 사우를 구별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것도 서원의 수가 증가되면서 많은 폐단이 거론되고 그 철폐를 금지하게 되어 사우로 설치한 후 서원으로 변경하기도 하고 서원으로 설립하였다가 금령으로 사우로 바꾸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령을 피하여 서원과 사우가 계속 증가되고 폐단이 늘어남으로 그 규제도 점차 강화되었다. 처음 인조조에 서원의 설립을 예조에 보고케 하여 허가 받도록 하였으며, 숙종조에는 서원의 원생을 제한하고 철폐를 엄금하였으며 사액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英祖朝에는 서원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여 170여개소를 철폐한 바 있으며, 高宗 1(1864)년에 대원군은 서원에 대한 모든 특권을 철폐하고 동왕 5(1868)년에는 전국에 사액서원만 남기고 모두 철폐령을 내렸으며, 뒤이어 사액서원도 일인일원 원칙에 따라 사우 20개처를 포함하여 47개 서원만 남겨두고 모두 철폐하였다.

각도별로 남겨진 서원은 보면, 경상도 14개 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경기도 12개 서원, 충청도 5개 서원, 평안도 5개 서원, 황해도 4개 서원, 강원도 3개 서원, 전라도 3개 서원, 함경도 1개 서원이다. 앞에서 언급한 「李朝書院文庫考」에 수록된 서원장서목록¹⁴⁾은 이 47개 서원 중 남한에 현존한 31개 서원을 대상으로 소장 도서가 20권 이상인 15개 서원의 장서를 조사하여 엮은 것이다.

3. 서원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서원의 기능은 선현을 향사하는 기능과 교학기능이 있으며 그 외에 여러 기능도 언급되고 있으나 그 주기능은 교학기능이다. 따라서 문고의 설치는 교학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수집되는 도서의 주제는 서원의 교육목표 및 내용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그 관련성을 밝혀보기에 앞서 간략하게 서원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3) 「孝宗實錄」 권18 8년 6월 壬辰.

14) 李春熙, “現存書院藏書目錄,” 「李朝書院文庫考」(1969), 1-184.

3.1 교육목표

주세붕이 서원을 세우면서 동방 도학의 원조인 안향의 사묘를 마련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가르침이란 반드시 현인을 존경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므로 立廟以尙德 立院以敦學이라고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백운동서원은 설립자의 뜻대로 안향과 같은 선현을 본받아 도학 즉 성리학을 수학의 목표로 삼았을 것으로 본다.

이후 설립된 많은 서원들은 각기 설립자의 의도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대체적으로 법성현과 양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밝히고 있다.¹⁵⁾ 法聖賢이란 성현의 학문적 도덕적 인간상을 본받아 원생들을 도덕적으로 완성시키고자 講明道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원이 처음부터 선현의 祠廟를 필히 갖추는 것이 전통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養吏란 관리 양성을 뜻하는 것으로 관학인 향교나 사부학당의 교육목표로 삼아오던 것으로 서원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일부 서원에서는 성현의 성리학설이 아니면 독서할 수 없고 과거시험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타처에서 학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¹⁶⁾ 있을 정도로 과거를 위한 교육을 배제한 경우도 있었지만 극히 한정적이라 생각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소수서원으로 사액된 후 초기에 엮어진 「紹修書院謄錄」에서, 서원에 온 선비가 불과 4-5년 만에 名士가 되고 쉽게 과거에 급제하여 사람들이 ‘入院者便登第’라 말하게 되었다는¹⁷⁾ 것을 자랑하듯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교와 마찬가지로 과거준비를 위한 교육에도 목표를 두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과거시험을 도외시하고 유생 자신만의 도학을 완성하기 위한 순수한 爲己之學으로만 서원이 존재하였다면

15) 崔完基, “朝鮮朝 書院의 教學機能 一考,” 『史學研究』 25(1985), 27-54..

16) 武城書院 院規에 “非聖賢之書 性理之說 則不得披讀 若欲做科業者 必習 于他處,” 上揭書, 34. 재인용.

17) 紹修書院謄錄 의 斯文立議 제2조, “來栖之人 不過四五年 皆爲名士 連捷巍科 人謂入院者便登第,” 金昌郁(1996), 46. 재인용.

지방 사림에 의해 호응을 받기 어려웠을 것은 물론 그렇게 서원이 남설될 만큼 크게 발전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나만의 편견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서원의 교육목표로 法聖賢에 이어서 養吏라하여 관리양성을 교육목표로 삼았음을 시대에 부응하는 당연한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목표가 서원의 교육내용은 물론 도서수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은 분명하다.

3.2 교육내용

서원의 교육내용은 각 서원의 원지에 나타난 원규에 근거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공통 필수과목으로 「小學」과 「四書五經」을 대부분 서원에서 채택하였고 기타 「家禮」, 「心經」, 「近思錄」, 性理之書, 諸史, 詞章, 등을 강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서류와 성리학 관련 교과목이 강명도학을 위한 것이라며 詞章이나 史記는 과거시험을 위한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위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조의 교육은 승유사상이 기본이 되어 유학교육을 강화하였으므로 官學이나 私學이나 經學이 중심이 되어왔다. 특히 서원 설립의 주도 세력 퇴계와 같은 성리학자이므로 서원의 교육 내용은 더욱 성리학 위주로 시행되었을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

「深谷書院誌」에 수록된 學規에서 독서하는 차례는 먼저 「小學」을 읽고 다음은 「大學」(겸 「或問」) 다음 「論語」 다음은 「孟子」 다음은 「中庸」 다음은 「詩經」 다음은 「書經」 다음은 「易經」 그리고 「心經」, 「近思錄」, 「家禮」 등 여러 책들은 혹 먼저 읽기도하고 혹은 뒤에 읽기도 하여 번갈아 읽는다.¹⁸⁾ 고 명시되어 있어 경학과 성리학만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사장에 대한 독서관장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서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伊山書院院規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18) 讀書 次第先小學 次大學兼或文 次論語 次孟子 次中庸 次詩經 次書經 次易經 而 心經 近思錄 家禮 諸書或先或後循環讀過(「深谷書院誌」, 141. 本院學規)

유생들이 독서하는데는 「사서오경」을 본원으로 삼고 「소학」, 「가례」를 문호로 삼아서, 나라의 선비를 양성하는 방법을 좇고, 성현의 친절한 교훈을 지켜만가지 착한 것이 본래 내게 갖춘 것임을 알고 예 도의가 오늘날에도 실천될 수 있음을 믿는다. 모두 다 힘써 몸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하며, 체를 밝히고 용을 적합하게 하는 학문을 할 것이며, 諸史子集이나 문장, 科擧의 업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널리 통하도록 힘써야하나 내외 본말 경중 완급의 순서를 알아서 해야 한다. 그 외 간사하고 요망하고 음탕한 글은 도를 어지럽히고 뜻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니 서원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¹⁹⁾

이 원규는 퇴계선생이 지은 것이나, 율곡선생도 「소학」을 먼저 읽어 근본을 기르고 대학과 「근사록」을 읽어 그 규모를 정한 다음 「논어」, 「맹자」, 「중용」, 오경을 읽고 틈틈이 사기와 선현의 성리지서를 읽어서 의취를 넓히고 식견을 정밀하게 해야 한다.²⁰⁾고 하였으므로 약간의 순서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한 독서 권장안으로서 조선조 서원들의 표본적인 교과목의 내용이며 독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서원문고의 설치와 도서의 수집

서원이 설립되고 강학에 필요한 제반 도서를 구입, 기증 그리고 자체 간행이나 필사하여 장서를 수집 보관하여 이용케 함으로서 문고가 설치 운영되는 것이다. 문고의 도서수집 방법별로 어떠한 도서가 수집되었는지 그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구입 도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서원이 문고를 마련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도서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자금만 있으면 편리하게 행할 수 있는 일이나 자금 마련이

19) 李滉, 「退溪先生文集」 권41. 雜著.

20) 李珣, 「栗谷全書」 권15 잡저, 金昌郁(1996), 101. 재인용.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백운동서원이 처음 건물을 지을 때 다행스럽게도 銅을 상당량 출토하게 되어 그것으로 일부 도서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竹溪志」에 수록된 초기 백운동서원장서에 수록된 도서들을 사부의 주제별로 재편성하여 적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白雲洞書院 藏書目錄 (주제별)

經部		史部		子部		集部	
周易大全	14권	通鑑	15권	近思錄	2권각4권	朱子大全	70권
春秋附錄大全	17권	東國通鑑	29권	性理大全	36권	文選 ²²⁾	15권
春秋胡傳大全	7권	名臣言行錄	16권	自警編 ²¹⁾	7권	楚辭	2권
春秋胡傳小全	4권	伊洛淵源錄	2권	朱子語類	59권	文章軌範	2권
禮記大全	16권	宋鑑	16권	韻府群玉	10권	儷語編錄	20권
禮記唐板小全	10권			博物志	1권	韓昌黎集	16권
詩大全	9권			續博物志	1권	柳子厚集	13권
詩大文	2권			眞西山心經	2권	樊川集	4권
書大全	9권			大學衍義	12권	完陵集	1권
書諺吐	8권						
書大文	1권						
周禮	7권						
大學	1부						
大學或問	1부						
中庸	1부						
中庸或問	1부						
論語大全	2권각7권						
孟子大全	2권각7권						
孟子大文	2권						
小學	2권각5권						
左傳大全	23권						

21) 이 책 表紙裏面記에 嘉靖二十二年二月 文成公廟成即宿水寺舊址也 四月書院成 慶州府 尹林公鵬印送胡傳春秋書傳自警編三書 太守商山周世鵬喜之甚 鳳城琴軸識之 (李春熙 (1969), 142.)로 기록되어 기증 도서로 확인됨.

22) 이 책 表紙裏面記에 嘉靖二十二年癸卯秋 白雲洞文成公廟書院成 太守周世鵬方務藏書 書生金應誠者故咸安郡守金學曾先生之子 願以家藏禮記一帙十卷 及是書十五卷 藏于書院 使生員朴承健書而誌之(李春熙(1969), 38.)로 기록되어 기증도서로 확인됨.

위 목록이 서원 설립 후 익년에 작성된 목록이므로 모두 구입 도서로 보기는 어려우나 퇴계선생의 글에서, 당시 서원 터에서 나온 銅으로 ‘經史子集 百千卷’을 구입하였다.²³⁾고 한 것과 중종실록에서 銅器 삼백여근으로 도서를 구입하여 소장하였는데 經書뿐 아니라 程朱之書도 없는 것이 없었다.²⁴⁾고 한 것으로 보아 「春秋胡傳」, 「書傳」, 「禮記」, 「自驚編」 등을 제외한 대부분 도서가 구입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에서 경부에 해당하는 도서는 21종, 사부는 5종, 자부 8종, 집부 9종으로 총 44종 500여권이 된다.

경부의 도서를 보면 「小學」을 비롯하여 「四書」와 「五經」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강학 교과에 중심이 된 경학 관련 기본서를 우선 구입하여 소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사부에는 편년류 사서인 「資治通鑑」과 「東國通鑑」과 전기류인 「名臣言行錄」과 「伊洛淵源錄」 뿐으로 경사자집 중에 가장 적은 장서라 하겠다. 강학 교과목에서 「四書五經」을 마치고 사서류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 준비에 필요한 일이므로 초기에 백운동서원에서는 과거 시험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갖고 그 목표로 삼았음이 구입도서의 내용으로서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자부의 도서는 주자와 그 학파인 西山 眞惠秀가 찬한 도서와 類書인 「韻府群玉」과 「博物志」 등으로 역시 강학 교과목이거나 널리 참고할 도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집부의 도서는 주자의 문집을 비롯하여 詞章 교육에 필요한 도서로 唐대의 문인 韓愈(「韓昌黎集」)와 柳宗元(「柳子厚集」), 杜牧(「樊川集」) 그리고 송나라의 시인 梅堯臣(「完陵集」)의 문집이 구입된 것으로 보아 당시 製述을 위해 주로 누구의 작품이 많이 읽혀졌는지 짐작케 한다.

또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서로 「小學」을 비롯한 「論語大全」, 「孟子大全」, 「近思錄」 등은 複卷을 구입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도서구입은 책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서원에서 도서 수집 수단으

23)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9(書)에 “而旁立堂齋亭宇 以爲諸生遊處講讀之所 掘地 得瘞銅若干斤 質經史子集百千卷以藏之. 李春熙(1969), 6 재인용.

24) 「中宗實錄」, 卷95 36년 5월 丁未.

로 우선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짐작되나 어떤 도서가 구입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선행 논문²⁵⁾을 참고하여 구입 도서를 추가 해보면 「續綱目」, 「漢書」, 「宋朝言行錄」, 「四禮便覽」, 「南坡集」, 「周禮」, 「經書」, 「通史」, 「小學」, 「儀禮」, 「八家文」 등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술한 백운동서원의 구입도서와 비슷하게 경학서와 사서, 문집류의 도서들이다.

그리고 다른 서원에서 간행할 때 일부 자금을 기부하고 나중에 책이 간행되면 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기증으로 받은 것 같으나 관점에 따라선 구입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서원에서 도서구입은 많이 행해지지 않아선지 확인한 도서의 양은 많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그 주제는 서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강의되는 내용 즉 「小學」과 「四書五經」, 程朱學의 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史書와 詩文의 도서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기증도서

서원에서 도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것이 기증받는 것이다. 가장 많은 도서가 기증에 의해서 확보되었음은 현존 장서목록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기증본은 기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내용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왕이 하사한 내사본과 일반 기증본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4.2.1 內賜本

내사본은 왕명에 의하여 도서를 하사한 것을 의미하는데 반사본이라고도 한다. 조선조의 내사본에는 결장 안쪽에 內賜記가 있고 본문 첫 장에 寶印이 찍힌다. 내사기에는 책의 내사연월, 내사 받는 이의 직함과 성명, 책명 및 건수, 命除謝恩,

25) 尹熙勉,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歷史學報』 제186집(2005. 6), 9-12.

임금의 명을 받들어 내사하는 부처의 관리 직함과 성을 쓰고 手決이 墨書되어 있다. 보인은 宣賜之記, 奎章之寶, 同文之寶, 欽文之寶 등이 찍혀지고 있다. 기관의 경우에는 받는 이의 직함 대신 기관 명칭이 들어가고 면제사은은 생략된다.²⁶⁾ 서원에 도서를 왕이 내려주기 시작한 것은 앞에서 밝혔듯이 명종조에 이황이 풍기군수로 있을 때 백운동서원을 사액서원으로 정하여 편액과 토지 서적 노비를 하사해 줄 것을 감사에게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紹修書院이라는 편액과 함께 도서를 하사받게 되면서 비롯되었다.

처음 명종이 하사한 책은 「四書五經」과 「性理大全」이었으며²⁷⁾ 그 이후 사액서원이 증가되면서 전례대로 도서가 반사되어 서원의 도서 확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임란 전까지 사액된 서원이 명종조에 4개 서원 선조조에 13개 서원으로 전체 17개 서원으로 밝혀지고 있어²⁸⁾ 내사본도 더욱 증가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도서가 부족하여 반사하는 예는 점차 줄어들기도 하였으나 英正朝 시대까지는 지속적으로 반사되었음을 다음에 명종조 이후 하사된 도서를 실록 기사와 서원의 장서 목록 등을 조사하여 엮은 <표 2>의 內賜本目錄을 통해서 대략 알 수가 있다.

<표 2> 內賜本目錄(四部別)

四部別	書名	活字名	內賜書院	內賜年度
經部	(四書五經)		紹修書院 臨臯書院 玉山書院	明宗 5(1550) 明宗 9(1554) 宣祖 7(1574)
	詩傳大全	丁酉字	陶山書院	正祖 18(1794)
	書傳大全	丁酉字	陶山書院	正祖 18(1794)
	周易傳義大全	丁酉字	陶山書院	正祖 18(1794)
	春秋左氏傳	丁酉字	陶山書院 南溪書院	正祖 22(1798)
	論語集註大全	丁酉字	陶山書院	正祖 18(1794)
	孟子集註大全	丁酉字	陶山書院	正祖 18(1794)
	大學章句大全	丁酉字	陶山書院	正祖 18(1794)

26) 千惠鳳,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592-593.

27) 「明宗實錄」 권10 5년 2월 丙午, 권13 7년 4월 丁丑, 「國譯竹溪志」 (2002) 30.

28) 李春熙(1969), 11.

經部	御製大學續或文		玉山書院	正祖年間
	中庸	丁酉字	陶山書院	正祖 18(1794)
	論語諺解	乙亥字	陶山書院	宣祖 23(1590)
	大學諺解	乙亥字	陶山書院	宣祖年間
	中庸諺解	乙亥字	陶山書院	宣祖年間
	小學諺解	乙亥字	陶山書院	宣祖 19(1586)
	御定奎章全韻		臨臯書院	正祖 20(1796)
	五經百篇	木版本	陶山書院 義巖書院 筆巖書院	正祖 22(1798)
鄉禮合編	丁酉字	陶山書院 玉山書院	正祖 21(1797)	
史部	綱目		紹修書院	明宗 7(1552)
	續綱目	乙亥字	紹修書院	明宗年間
	通鑑續編		臨臯書院	明宗 9(1554)
	少微通鑑		臨臯書院	明宗 9(1554)
	國朝儒先錄	乙亥字	玉山書院	宣祖 10(1577)
	精忠錄	再鑄甲寅字	陶山書院	宣祖 18(1585)
子部	朝天錄		錦山書院 沃川書院	英祖年間
	性理大全		紹修書院	明宗 5(1550)
	朱書百選	丁酉字	陶山書院 玉山書院	正祖 18(1794) 正祖年間
	朱子語類	丙子字 丙子字	紹修書院 玉山書院	宣祖年間 宣祖 10(1577)
集部	事文類聚		紹修書院	明宗 7(1552)
	朱子大全	乙亥字 乙亥字	紹修書院 玉山書院	宣祖年間 宣祖 10(1577)
	雅誦	丁酉字	陶山書院 東洛書院	正祖 23(1799)

상기 내사본목록에 기재된 도서 이외에도 사액서원 수로 보아 훨씬 많은 내사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조사할 과제로 미루고, 확인된 도서만을 대상으로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내사시기는 명종, 선조, 영조, 정조조에 하사한 도서가 대부분이며 정조때 많은 도서가 서원에 반사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명종조에서 임란전까지 사액서원에 적지 않은 내사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전쟁으로 일실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내사본은 대부분 활자본이고 목판본은 정조가 편한 「五經百篇」 한 종만이 확인되었다. 내사본의 내용을 보면 서원의 기본적인 교과목인 경학이 전체 29종 중 16종으로 사서오경

위주로 반사되었으며, 사부는 「資治通鑑」과 전기서가 일부 포함되었다. 자부에는 유학류인 주자학서와 유서인 「事文類聚」가 들어 있고 집부에서도 주자의 문집이 포함되어 있다. 더 많은 서원의 내사본을 조사하여 분석 해야겠지만 이상의 내사본만을 고려해 볼 때 서원의 내사한 도서의 주제는 대부분 서원에서 기본적인 필수적으로 강독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음이 다른 수서 방법에 비교하여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2.2 일반기증본

기증본에서 나라에서 왕이 하사한 도서이외에 것을 편의상 일반기증본이라고 구분해 본다면 여기에는 우선 여러 기관에서 기증한 도서와 개인이 기증한 도서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관에서 기증한 예는 지방의 감영이나 부, 목, 군, 현에서 목판본을 간행하여 관할 지역내 각 기관에 보낼 때 서원에도 기증하여 유생 교육을 격려하였을 것으로 보는데, 그와 같은 사례는 도산서원장서목록²⁹⁾에 수록된 「延平李先生答問後錄」의 주기에 “淸州牧開刊 陶山書院上”으로 되어 있거나, 「退溪先生自省錄」의 주기에 “羅州牧開刊 陶山書院上”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옥산서원장서목록³⁰⁾에 수록된 「東萊先生音註唐鑑」의 주기를 보면 경주부에서 개판된 것이 옥산서원으로 기증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외에도 嶺營에서 간행된 「書傳大全」, 「二倫行實圖」, 「孟子諺解」, 「孟子集註大全」 등도 玉山書院으로 기증된 것임을 해당 도서목록의 주기사항을 보면 확인된다.

다음은 서원에서 자체 간행한 도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기증 받아 장서를 증가시키기도 하였는데 그런 사례로는 도산서원장서목록에서 「寒岡先生言行錄」의 註記에 보면 “ 뒷表紙裏面記: 陶山書院上 丁亥十月 日 “東洛書院印送” 으로 기재된 것이나 「桐溪先生文集」, 「葛川先生文集」의 주기에 “龍門書院印送”으로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玉山書院 목록에서도 「帝王曆年通攷」가 경주

29) 상계서, 11-49.

30) 상계서, 50-88.

西岳書院에서 인쇄하여 보낸 것으로 주기되어 있어 적지 않은 도서가 서원 간에 상호 교환 형식으로 기증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외에 사찰이나 향교에서 기증한 사례도 있으나 기증된 도서의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적은 양이므로 생략하였다.

개인이 기증한 도서의 예로는 「耻齋先生遺稿」의 목록 주기에 “ 뒷表紙裏面記: 崇禎十二年己卯(1639)安東通判洪有炯印送”으로 명시 된 것이나 이미 앞에서 백운동서원의 개원 즈음에 「春秋胡傳」, 「書傳」, 「自警篇」³¹⁾ 등을 개인이 기증하였으며, 배향자가 받은 내사본을 본인이나 후손이 서원에 기증하여 보존되고 있는 사례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李滉이 내사 받은 「儀禮經典通解」가 도산서원 장서목록에 수록되어 있고, 李彥迪이 내사 받은 「二倫行實圖」, 「埤雅」, 「皇華集」 등이 옥산서원장서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조사하여 밝힌 논문³²⁾에서도 경주 옥산서원의 개인 기증본은 대부분 문집이나 전기류의 도서로서 후손들로부터 기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일반 기증본의 내용을 그 기증자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官衙에서 기증된 도서는 주로 경학 도서이거나 주자학 관련 주제가 대체적으로 많았고, 다음 서원에서 기증한 것은 주로 선현들의 문집이나 행적을 담은 도서들로서 서원들의 간행도서의 내용 중 가장 많았던 것과 일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기증본의 내용은 문집 전기서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강학에 활용될 경학서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다.

4.3 도서의 간행 및 필사

구입에 의한 도서수집과 내사본을 포함한 관아나 서원 문중 개인의 의한 기증본으로 장서를 증가해 가면서 한편 서원 자체적으로 필요한 도서를 제작하여 장서를 확보하였는데 여기에는 도서를 간행하거나 필사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각 각 어떠한 도서를 간행하고 필사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1) 註 17), 18) 참조.

32) 尹熙勉(2005), 18.에 수록된 옥산서원 기증받은 책(1817-1869)의 목록 중 개인이 기증한 것이 9종인데 문집 7종, 전기 2종으로 확인함.

4.3.1 도서의 간행

서원에서 도서를 간행하는 일은 구입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는 일이므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원으로서의 간행을 추진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초기 서원에서 간행된 도서로는 淸涼書院에서 明宗 21(1566)년에 「近思錄集解」와 「漢書傳抄」, 宣祖 1(1568)년 「古史通略」이 간행되었고, 川谷書院이 선조 7(1574)년에서 그 다음해에 걸쳐 「薛文淸公讀書錄要語」와 「朱子書節要」를 간행하였고 「鳴谷書院」에서 선조 14(1581)년에 「標題句解孔子家語」, 「新刊素王事紀」가 간행된 것으로³³⁾ 밝혀져 있듯이 혼치 않다.

각 서원에서 간행한 도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간행서를 조사해야겠으나, 우선 정조에 의해서 전국에서 목판으로 개관한 도서를 조사하여 간단한 해제와 판서 사찰 서원 사가 등 출판처를 밝혀 엮은 「鏤板考」를 통하여 대체적인 서원의 출판사정과 그 주제를 살펴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누판고」에 수록된 서원판본을 정리하여 각 도별로 간행 상황을 <표 3>으로 정리해 보았다.

<표 3> 道別 書院의 圖書刊行 狀況

書院	種數	書院	種數	書院	種數
京畿道		星州 淸川書院	1	豐基 郁陽書院	1
開城 崧陽書院	1	星州 檜淵書院	6	咸安 德巖書院	1
開城 花谷書院	1	新寧 龜川書院	1	咸安 西山書院	3
忠淸道		安東 鏡光書院	1	咸安 松汀書院	1
文義 黔潭書院	1	安東 魯林書院	1	全羅道	
報恩 象賢書院	2	安東 默溪書院	3	錦山 從容祠	1
連山 遜巖書院	5	安東 屏山書院	3	古阜 道溪書院	2
尼城 魯岡書院	7	安東 三溪書院	1	光州 義烈祠	1
林川 七山書院	2	安東 祚溪書堂	1	光州 褒忠祠	5
淸州 華陽書院	2	安東 周溪書院	3	羅州 眉泉書院	1
韓山 文獻書院	3	安東 虎溪書院	2	綾州 竹樹書院	1
慶尙道		安義 龍門書院	3	順天 玉川書院	2

33) 千惠鳳(2006), 240.

慶州 龜岡書院	3	榮川 龜江書院	1	順天 芝峰書院	1
慶州 東江書院	1	榮川 三峰書院	2	順天 忠愍祠	1
慶州 西岳書院	2	榮川 迂溪書院	1	礪山 竹林書院	1
慶州 玉山書院	7	榮川 義山書院	2	靈巖 鹿洞書院	1
慶州 龍山書院	1	永川 道今書院	4	長城 筆巖書院	1
密陽 禮林書院	2	永川 梅谷書院	2	長興 淵谷書院	1
泗川 龜溪書院	1	永川 臨臯書院	1	全州 石溪書院	2
山淸 西溪書院	1	永川 環邱世德祠	1	黃海道	
尙州 近巖鄉賢祠	3	禮安 陶山書院	17	延安 顯忠祠	1
尙州 道南書院	3	義城 藏待書院	4	平山 九峰書院	1
尙州 西山書院	2	仁同 東洛書院	4	平山 雲峰祠	1
尙州 淵嶽書院	1	晉州 大覺書院	2	海州 紹賢書院	5
尙州 玉成書院	3	晉州 德川書院	1	平安道	
尙州 興巖書院	2	晉州 新塘書院	3	龍岡 鰲山書院 咸鏡道	2
善山 金烏書院	3	晉州 臨川書院	1	鏡城 彰烈祠	1
善山 洛峰書院	5	淸道 仙巖書院	1	北淸 老德書院	1
善山 松山書院	2	淸道 紫溪書院	3		
星州 柳溪書院	1	統制營 忠烈祠	1		
星州 安奉影堂	1	豊基 愚谷書院	1		

「누판고」는 정조가 즉위한 다음 해에 각도에 유시를 내려 조사케 하여 동왕 20(1797)년에 완성된 것이므로 자세히 조사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당대의 누락된 도서는 물론 그 후에 간행한 도서가 포함 안 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감안되어야 겠지만³⁴⁾ <표 2>에 나타난 실적만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원의 간행

34)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의 개관기록이 鏤板考 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韓國冊板目錄總覽 에 서 家禮諺解序安氏世家, 雜書, 藏書錄, 尊賢錄, 竹溪志記, 竹溪行錄, 追遠錄, 學田錄, 등이 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高山書院(長城), 谿礪書院, 龜淵書院, 南康書院(康津), 藍溪書院(咸陽), 內山書院(靈光), 冷岳書院(善山), 漕州書院(咸陽) 陶溪書院, 道山書院(公州), 道川書院, 道統祠(晉州), 鳴谷書院(舒川), 畝長書院(靈光), 勿溪書院(昌寧), 白峰書院, 栢淵書院(咸陽), 鳳谷精舍, 鳳城精舍(求禮), 三江書院, 西山書院(咸陽), 西岩書院(淸道), 松江書院(潭陽) 松潭祠(玄風), 松潭書院(江陵), 松鶴書院(靑松), 松湖書院(咸陽), 壽岡書院, 新川書院(陝川), 良川書院(軍威), 禮淵書院(玄風), 五峰書院(江陵), 龍溪書院(永川), 龍塘書院(晉州), 龍岡書院(晉州), 龍門書院(咸陽), 龍山書院(寶城), 龍泉書院, 愚山書院, 雲巖祠(麗水), 月峰書院(光州), 栗谷書院(咸昌) 義巖書院(潭陽), 紫山書院(咸平), 章山書院, 竹谷精舍(平壤), 彰節書院(寧越), 霞溪精舍, 賢巖書院, 護聖祠, 華山書院(全州), 華菴書院(淸州), 橫溪書院(永川), 興鎮精舍 등 에서도 간행한 도서가 있음을 각 종 문헌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그 내용은 누판고 의 서원간본과 마찬가지로 문집이 가장 많았다.

상황은 84개 서원에서 총 185종이 개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누판고」에 실린 사찰본³⁵⁾보다 많은 수로서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서원이 미친 영향이 사찰보다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일이다. 도별 개관상황은 경상도가 개관한 서원이나 개관한 건수에 있어서 타도에 비교하여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순이다. 강원도에서는 한건의 개관 실적이 없는 데 그 사유는 당시 그 지방의 경제적 지리적 빈약성에 연유된 것으로 보고 있다.³⁶⁾

다음은 서원에서 간행한 도서들의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위에 총 도서를 사부분류법에 의해 <표 4>와 같이 주제별 통계를 작성하였다.

<표 4> 書院 刊行圖書의 主題別 統計

도별	개관서수	개관종수	경 부					사 부				자 부		집 부		
			총경류	역류	예류	신서류	소학류	통사류	잡사류	전기류	장고류	유가류	설가류	총집류	별집류	
경기도	2	2														2
충청도	7	22			4		1			3		1				13
경상도	54	128	1	3	4	2	1	2	1	15	1	13	1	2		82
전라도	14	21			2					4	2	1				12
황해도	4	8								2		3				3
함경도	2	2								1	1					
평안도	1	2														2
계	84	185	1	3	10	2	2	2	1	25	4	18	1	2		114

35) 金允植, “鏤板考의 書誌의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대학교대학원, 1979), 45.

36) 李春熙 (1969), 22.

<표 3>에 의하면 총 185종의 주제는 경부 19종, 사부32종, 자부18종, 집부116종이다. 좀 더 주제를 세분하여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주제는 문집류로서 전체의 63%로 차지하는 116종이나 되며 이는 대부분 서원 설립자나 그配享者 그리고 관련 친인척의 문집이다. 두 번째로 많은 주제의 도서도 그들의 행적 등을 엮은 사부의 전기류로 25종이나 되어 이를 합하면 141종(77%)이 향사자나 설립자와 관련된 도서들이다. 이 문집류나 전기류의 두 가지 주제는 강학용으로 필요하여 간행 하였다기보다는 서원과 연고가 있는 선현의 학문과 사상을 빛내고 배우려는 후학이나 후손들의 의도로 간행된 것이며 나아가 가문과 서원의 勢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아진다. 그럼 나머지 도서는 어떠한 내용이며 그 간행 사유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누관고에 수록된 서원 간행본 중 상기 두 주제를 제외한 나머지 44종의 도서를 사부의 주제로 나누어 해당 서명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經部

- 總經書類: 「經書釋義」
- 易類: 「易學圖說」, 「啓蒙博疑」, 「大河圖·小河圖」
- 禮類: 「奉先雜儀」, 「家禮考證」, 「五先生禮說」, 「家禮輯覽」, 「家禮源流」, 「五服沿革圖」, 「喪禮備要」,³⁷⁾ 「疑禮問解」, 「明齋疑禮問答」,
- 四書類: 「大學章句補遺」, 「大學童子問答」
- 小學類: 「三韻通考補遺」, 「禮部韻略」

史部

- 通史類: 「東國通鑑提綱」, 「帝王歷年通攷」
- 雜史類: 「懲毖錄」
- 掌故類: 「西岳志」, 「昇平誌」, 「彰烈祠志」, 「霽峰遊瑞石錄」

子部

- 儒家類: 「心經質疑考誤」, 「理學通錄」, 「古經重磨方」, 「性理說」, 「易學圖說」,

37) 遯巖書院과 石溪書院 두 서원에서 간행.

「近思錄」, 「近思錄釋疑」, 「聖學輯要」, 「擊蒙要訣」,³⁸⁾中庸九經衍義」,
「求仁錄」, 「太極問辨」,³⁹⁾「晦谷進學圖」, 「程書分類」, 「朱書講錄刊補」,
「心經發揮」, 「陽村入學圖說」⁴⁰⁾

- 說家類: 「櫟翁稗說」

상기 도서들 중 서원에서 강학에 사용되거나 유생이 읽어야 할 도서이므로 간행한 것도 적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대부분 도서⁴¹⁾의 찬자나 편자가 공교롭게도 서원의 배향자로 되어 있음으로 이 역시 문집이나 전기류와 마찬가지로 향사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위주 만이 아닌 과시하기 위한 간행 이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조선조 출판문화 발전에 일조를 한 서원의 출판 사업이 기본적인 교육에 필요한 도서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배향자 위주의 도서를 인쇄한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 하겠다.

4.3.2 도서의 필사

서원에서 도서를 필사하는 것은 간행본과 마찬가지로 장서를 증가시키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물론 필사된 도서가 기증된 사례도 있지만⁴²⁾ 극히 드문 일이며 대부분 서원에서 자체 제작하여 보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李朝書院文庫考」에 수록된 現存書院書院藏書目錄⁴³⁾을 통하여 필사본을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원별 필사된 건수는 陶山書院이 17건, 玉山書院

38) 順天 玉川書院과 海州 紹賢書院에서 간행.

39) 慶州 玉山書院과 星州 檜淵書院에서 간행.

40) 「鏤板考」에서는 經部 總經書類로 분류되어 있으나 儒家類로 정정 분류함.

41) 易類의 大河圖小河圖 小學類의 三韻通考補遺, 禮部韻略 通史類의 帝王歷年通攷, 儒家類의 近思錄, 陽村入學圖說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서들은 서원과 관련되거나 配享者가 저술한 것이다.

42) 陶山書院藏書目錄에 수록되어 있는 필사본 李退溪書抄 를 보면, 주기사항에 퇴계의 7대손 李泰淳이 복사케 하여 도산서원에 보낸 것이라 기록되어 있어 기증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43) 李春熙(1969), 1-184.

55건, 屏山書院 71건, 紹修書院 20건, 檜淵書院 10건, 濫溪書院 3건, 玉洞書院 2건, 深谷書院 9건, 筆巖書院 6건, 臨臯書院 16건이 각 각 수록되어 있다.

다음 필사본의 내용을 보면 강학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서나 사서 등이 있으나 극히 적은 양에 지나지 않고, 간본이 일부 일실되어 缺된 부분을 필사하여 보충한 예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서원에서는 배향자와 그 관련 문인의 문집도 필사되었는데, 여기에는 도산서원의 「退溪先生文集」, 「梅窓先生文集」, 옥산서원의 「潛溪先生遺筆雜稿」, 병산서원의 「賁趾先生文集」, 「西厓先生文集」, 「巖先生文集」, 「齋先生文集」, 「拙齋遺稿」 그리고 회연서원의 「東萊呂太史文集」 등 수종이 있으며 연보나 행적을 적은 책으로는 옥산서원에 「潛溪公實蹟」, 「默軒實記」, 병산서원에 「多義堂蔡先生言行實記」, 「大山先生實記」, 「厓先生年譜」 등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부는 동일한 서명의 간본이 있어 간행에 앞서 필사되어 보존된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 외 필사본은 각 서원의 주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문서 성격의 자료들로서 그 내용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서원문고에 소장된 圖書目錄
- ② 서원을 찾아온 방문객을 기록한 尋院錄
- ③ 서원에 입학한 유생들의 명단인 入院錄
- ④ 서원이 소유하고 있는 전답에 관한 기록인 田畓案
- ⑤ 서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과 수수된 문서를 기록한 書院雜錄
- ⑥ 서원 업무의 인수 인계사항을 기록한 傳掌記
- ⑦ 서원에 대소사를 기록하여 놓은 臚錄
- ⑧ 원장이나 관리인이 기록한 院長錄, 執司錄, 有司錄
- ⑨ 강학당에서 유생들의 강학 모습과 대소사를 담은 講學雜錄
- ⑩ 제사와 관련된 祀祭日記, 祭官錄
- ⑪ 서원의 중수를 기록한 重修記
- ⑫ 역대 원장에 관해 기록한 任事錄
- ⑬ 노비에 관해 기록한 奴婢案

이러한 자료는 일부 간행한 경우는 있으나 대부분 강학에 활용되거나 널리 간행하여 배포할 필요가 없어선지 필사본으로 남겨져 전하고 있다. 서원의 운영이나 입학한 유생들의 명단 소유재산 등 전반적인 서원의 역사를 후대에게 전하고 알리는 사료로서 귀중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배향자의 자필 기록들이 있어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필사본의 내용은 강학도서와 선현의 문집이나 행적의 기록보다는 이러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 론

본고는 조선의 사학 기관인 서원의 문고 설치를 위하여 도서수집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수집 방법별로 도서의 주제는 어떠한지를 밝혀보고자 연구된 것으로, 먼저 서원의 설립과 변천 그리고 교육목표 교육내용을 살펴보고 중점적으로 문고 설치를 위해 도서수집 방법 즉 구입과 수증 그리고 자체적으로 간행하거나 필사한 도서들을 조사하여 그 주제를 고찰해 보았다. 고찰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하여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원에서 구입된 도서의 주제는 강학 내용과 같은 사서삼경의 경서류와 정주학 관련도서가 대부분이었고, 소수의 역사서가 포함되었다.
2. 서원에 기증받은 도서 중 왕이 하사한 내사본의 주제는 구입 도서의 내용과 유사하게 강학에 필요한 경서류와 정주학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3. 기증된 도서 중 일반 기증본은 편의상 관아, 서원 등 기관의 기증본과 개인의 기증본으로 구분해서 조사하였는데 관아에서 기증한 도서의 내용은 주로 경학 도서이거나 정주학 관련 주제가 대체적으로 많았고, 다음 서원에서 기증한 것은 주로 선현들의 문집이나 행적, 연보를 수록한 전기서로서 서원의 간행도서의 주제 중 가장 많았던 것과 일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이 기증한 도서의 주제는 문집 전기서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강학

에 활용될 경학서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다.

4. 서원에서 간행한 도서의 내용은 향사자나 설립자와 관련된 문집류나 전기류가 대부분 이었고 강학용의 경학서도 배향자가 저술한 도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서원에서 도서의 간행은 연고가 있는 선현의 학문과 사상을 빛내고 배우려는 후학이나 후손들의 뜻으로 이루어졌지만 가문과 서원의 세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서원에서 필사한 도서는 배향자의 문집이나 전기서가 일부 있었지만 각 서원의 운영상태, 입학한 유생 명단, 방문자, 소유재산 등 전반적인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사료적인 소중한 자료가 대부분 필사 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으로 서원 문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를 수집하여 장서를 확충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 내용에 있어 경서와 정주학 그리고 문집과 전기서에 일부 역사서가 포함되어 있는 바, 너무도 한정된 주제의 도서만을 수집 소장하였으므로, 송유 시대의 범성현과 과거준비를 위한 사학기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나 다양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姜周鎭. “書院과 그 社會的 機能.” 『韓國史論』 8(1982. 12). 58-88.
- 金昌郁. “16세기 初期書院의 講學活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 학교 대학원. 1996.
- 白 麟. 『韓國圖書館史研究』.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1.
- 朴現圭. “屏山書院 書冊目錄의 分析과 그 特徵.” 『季刊書誌學報』 14(1994. 12). 37-65.
- 徐有渠. 『鏤板考』 寫本. 7권3책.

- 深谷書院. 「深谷書院誌」. 용인시: 深谷書院, 2002.
- 윤상기. “경남함양군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32집 (2005. 12). 237-271.
- 尹熙勉. “조선시대 書院의 도서관 기능 연구.” 「역사학보」 186집(2005. 6). 1-26.
- 李範稷. “朝鮮前期 書院의 教育機能.” 「韓國史論」 8(1982. 12). 89-112.
-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서울: 國會圖書館, 1969.
- 李春熙. “朝鮮朝 鄉校文庫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 5(1978, 12). 1-30.
- 李春熙.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관한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4.
- 전남대학교. 「전남서원의 목판」. 광주: 동대학문헌정보학과, 1998.
- 鄭萬祚. “朝鮮書院의 成立過程.” 「韓國史論」 8(1982. 12). 25-56.
- 鄭淳睦. 「韓國書院教育制度研究」. 경산: 영남대학교, 1979.
- 鄭亨愚. 尹炳泰. 「韓國冊版目錄總覽」.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1979.
- 「朝鮮王朝實錄」 世宗卽位年 11月 己酉. 2年 正月 庚申. 2年 9月 己丑.
- 「朝鮮王朝實錄」 中宗 36年 5月 丁未.
- 「朝鮮王朝實錄」 仁祖 22年 8월 己未.
- 「朝鮮王朝實錄」 明宗 5年 2月 丙午.
- 千惠鳳.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 崔完基. “朝鮮朝 書院의 敎學機能 一考.” 「史學研究」 25(1985). 27-54.

